

“판소리 본향 전라도 매력 선보일 것”

조용안 전남도립국악단 신임 예술감독

7월 토요일상설공연 시즌 개편 브랜드 창극 작품 창제작 등 “도민과 공감... 정체성 확립”



조용안 제8대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도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예술단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과 희로애락 속에 머물고 깃들여있는 전남도립국악단, 그것이 예술감독으로서 이뤄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조용안 제8대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의 포부다. 조 신임 예술감독은 “국악단만의 공연을 통해 도민과 함께 예술적 공감대를 실현하고 싶다”고 30일 밝혔다.

조 예술감독은 △토요일상설공연 리뉴얼 △전남 브랜드 공연으로 창극 작품 제작 등을 통해 전남도립국악단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그동안 전남도립국악단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뤄온 ‘공연적 성과’ 등은 너무나 가치 있고 눈부시다”며 “매주 선보이고 있는 토요일상설공연에서 대대적인 연출적 변화와 고품격 전통 프로그램으로 전남도립국악단의 정체성을 재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예술감독의 본격적인 연출과 함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 새로운 시즌의 토요일상설공연은 오는 7월 시작된다.

전통 판소리의 가치와 매력에 집중하겠

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예술감독은 “전라남도는 판소리의 본향이다. 그동안 목말랐던 전통 본연의 공연들을 제대로 선보이겠다”며 “기존의 창극 작품들이 대부분 판소리가 가미된 정도의 현대적 창극을 추구했다면, 나는 오히려 판소리에만 기반을 둔 전통 창극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순신을 비롯해 우리 지역만이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두고 대표 브랜드 창극을 제작해 관객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계획 중인 기획공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예술감독은 “오는 10월 이틀만 들어도 알만한 지역 내 정상급 명인·명창

·명무들과 함께하는 특별 기획공연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기획공연을 통해 우리 지역이 왜 전통예술의 산실이자 메카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용안 신임 예술감독은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장단 보유자다.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과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마당창극 ‘전한 맹인의 눈을 뜬다’, ‘아나오타. 배갈라리’ 연출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국악 대중화에 앞장섰다. 임기는 2026년 4월 8일까지 2년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 남부경찰, 민관 협력 범죄예방 전략회의 개최

5대 범죄, 데이터 분석 대응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강화

광주 남부경찰이 민관 힘을 합쳐 범죄 예방 전략 구상에 나섰다. (사진)

광주 남부경찰은 30일 청사 본관 2층 봉선홀에서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부경찰은 신설된 범죄예방과를 중심으로 최근 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능별 주요 추진 업무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파악해 익월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수립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5대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는 112신고,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분석을 바탕으로 부서 간 협력 방안을 세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분석한 치안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주요 행사 △집회·시위 △주민의견(국민신문고) 등 지역별 이슈를 발굴해 지역맞춤형 범죄예방도 강화한다.

송세호 남부경찰서장은 “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대응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화상으로 참석한 6명을 포함 총 35명이 함께 토론했다. 남부경찰서장, 각 과·계장, 지역 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영미 남구청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 강미진 탐정이 대리 참석했다. 이밖에 송승현 도시계획과장, 양우찬 남구자율방범대장, 김도연 자살예방센터상임탐정, 성지영 YWCA 통합상담지원센터장 등이 초청인사로 함께했다.

박찬 기자

“기사도 고객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제품”

김진일 헤이뉴스 팀장, 저널리즘 특강

‘디지털 콘텐츠 제작’ 주제 강연



김진일 헤이뉴스 팀장이 30일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주제로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일보는 30일 오후 본사 승정문화관에서 김진일 헤이뉴스 팀장을 초청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라는 주제로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김 팀장은 이날 편집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뉴스 타깃 설정 및 전달 방식, 성장세의 중요성(구독자 추이), 위기 극복 과정 등을 설명하며 “기사도 고객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제품이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채널의 성장세가 주춤한다면 새로운 플랫폼을 찾거나 채널을 분리하는 등 대응책이 바로 나와야 한다”며 “헤이뉴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누가 우리의 기사를 읽을까’였다”고 말했다.

그는 “헤이뉴스는 대상을 MZ세대로 잡았다. 어린 사람을 MZ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기보다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민했고 전통 뉴스를 하되 전달 방식을 그들에게 맞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MZ세대라고 무조건 ‘가십거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가 달라질 뿐 뉴스가 이용자에게 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편향된 시선이 들어간 완성된 뉴스를 전달하기보다는 사실과 정보를 담은 ‘신선한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

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고 정보의 전달자(공급자)가 되기를 원한다.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영상은 초반 2, 3초에서 사람들을 붙잡아야 한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상은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SNS의 특징은 피드백이 바로 온다는 것이다. 원칙과 기준은 흔들리지 않도록 정당한 지적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시장에서는 컨셉이 명확

해야 한다. 이용자가 ‘이 뉴스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그냥 콘텐츠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언론사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일 헤이뉴스 팀장은 JTBC에서 방송기자로 활동하다 2017년 네이버 포털에 ‘소탐대실’을 제작했고, 2018년 헤이뉴스를 공동 제작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나다운 기자



한국백혈병소아암협, 화순전남대병원에 헌혈증 기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서 헌혈증 2천매를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30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는 화순전남대병원에 지난 202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헌혈증서를 기부했으며, 누적 헌혈증서는 1만2000매에 달한다.

화순전남대병원 접견실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민정준 병원장과 강호철 진료처장, 이예경 간호부장을 비롯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

회 최영준 이사장, 김봉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 이사장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의 거점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에 헌혈증을 기부하게 됐다”며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 병원장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뜻에 공감하고, 병원도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분이 뜻을 모아 동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전일 게시판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알림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

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062)413-1195
▽산티아고 순례길 설명회(재능기부)=6월1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IPLEX 광주 1층 카페(동구 동명동), 대상: 산티아고 순례길 궁금한 분/준비 중인 분/까미노 블루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누구나 환영, 인원: 30명(선착순), 참가비: 1만원(카페 차 포함), 대학생 무료(미리 신청자에 한함), 문의: 카카오톡 ID- snh2139, 010-3634-3200

날씨와 생활		해돋이	해질	달돋이	달질
		05:20	19:41	01:17	12:45
오늘의 날씨 (최저/최고 기온)		자료: 기상청·웨더아이			
광주·나주 담양·화순	☀️ 17/27	무안·함평 장성·영광	☀️ 15/24	목포·해남 신안·진도	☀️ 17/24
순천·광양 곡성·구례	☀️ 17/28	장흥·영암 강진·완도	☀️ 16/27	여수·보성 고흥	☀️ 17/26
전국 날씨		주간 날씨			
서울	☁️ 17/26	대구	☀️ 18/30	1(월) 2(일) 3(월) 4(화) 5(수) 6(목)	
대전	☀️ 16/27	제주	☁️ 18/23		
물때		생활 기상 정보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미세먼지	외출지수
07:48	00:49	04:11	11:05	보통	가족과 공원으로 나들이를
20:13	14:06	16:41	22:57		우산 없이도 좋아요